



消費者 찾아나서 內需 기반 확보

金 容 元 / 大宇電子(株) 社長

「벌써 이해도 저물었는가…」
해마다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自問이다.

언제나 무언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고 못다한 일들이 산처럼 쌓
인 가운데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속절없이 안타까와 하는 것은 이
번 癸亥년도 예외가 아닌것 같다.

생각은 열이나 몸은 하나인지
라, 크고 많은 계획 들을 의욕적
으로 세워 놓고 나름대로의 정열
을 쏟아가며 東奔西走했으나, 목
표에 비해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란
그렇게 만족스런 것이 못된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그 동안 몇
년간에 걸친 불황이 금년 상반기
까지도 그 긴 꼬리를 끌면서 불
투명한 경기 전망을 던져주고 있
었고, 선진 전자공업국들의 팽팽
한 牽制와, 후발 전자공업국들의
執拗한 도전 속에서 四面楚歌에
처해 있었던 우리들의 현황이 그
나마 조그마한 변명거리가 된다
면 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만
한 난관도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
더냐고 나 자신을 엄하게 叱責도
해본다.

1974年度에 Audio 專門 生産業
體로 출발한 大宇電子는 그 동안
수출에만 전념해 왔으나, 국내 電
子産業의 급속한 성장 발전을 최
일선에서 선도해야만 되겠다는
일말의 사명감에서 과감하게 용
단을 내려 금년도초에 大韓電線
家電事業部門을 흡수· 합병하기

에 이르렀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뿐이고, 수출을 하
자면 세계시장의 여건에 발맞추
어 나갈 수 밖에 없으며, 그러자
면 확고한 內需기반이 없이는 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
문이었다.

大宇電子에 있어 금년 한해는
미래에의 도약을 위한 굳건한 발
판을 다져놓은 한 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러한 기초작업을 금년 한해 동안
에 착실하게 진행시켜 온 터이기
도 하다.

취약한 국내의 내수기반을 다
지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集中的으로 밀어붙였던
호남지역 특별판매 캠페인은 이
지역의 市場 占有率 신장은 물론
이고, 인근지역에까지도 그 영향
을 끼쳐서 大宇電子의 기업 이미
지 상승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大宇電子는 이 호남지역
의 유지들이나 주민들에게 단순
한 선심 공세나 말뿐인 공약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들을 생각하고 위해 주며, 봉사
를 아끼지 않는 참된 심부름꾼으
로 임했다. 각 지역의 읍, 면
단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무료
서비스를 강행하였고, 도서벽
지의 공공 기관이나 노인회관 같
은 곳엔 무료로 컬러 TV를 설치
해 주기도하였다. 地域發展과 公
共福利를 위한 일이라면 利害까

지도 초월하였던 이러한 봉사활
동은 그 후에 현지로부터 당사에
답지한 수많은 감사편지들로 주
민들의 마음이 대변되기도 남았
다.

「출범 83!」 명실상부한 綜合
家電 메이커로서의 새 출발을 다
짐하는 우리 大宇電子의 금년도
구호였다. 구호는 구호만으로 그
치지 않았고, 단합과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그것들은 또 당연히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대우 붉은 불꽃이 당겨졌고,
대우전자 대리점을 개설하겠다는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다. 도처에
新設代理店들이 들어서게 되었
고, 그만큼 그 지역의 시장 점유
율이나 전체적인 賣出伸張에도
당연히 공헌하였다. VTR을 위시
하여 카세트등 몇 가지 인기품목
들의 공급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공장의 생산라인들이 총비상에
돌입했다. 그래도 몇몇 품목들은
품귀사태까지 발생하여, 현금을
주기도 물건을 못 구하는 지경으
로까지 되었다.

생산의 活性化와 더불어 신제
품 개발면에서도 획기적인 전환
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Sony
방식의 베타 로얄VTR을 개발해
온 대우전자는 무선 작동이 가능
한 소위 와이어리스 리모콘 VT-
R 개발과 더불어 카세트를 전면
에서 넣고 빼는 프론트 로딩방식
의 보급형 VTR을 계속해서 개

발해 내므로써 연타를 날렸다. 냉장고도 신제품개발에 앞장을 섰다. 국내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IC냉장고를 개발해 낸 것이다. 냉장고의 IC시대 개막은 이제까지의 냉장고에 대한 개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 놓을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었다. 즉 대우 IC 냉장고만이 20분대에 식품을 快速 冷凍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쾌속 냉동을 통해서만 식품의 세포 변형이 없이 완전무결하게 저장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신선한 냉동식품을 먹고자하는 사람은 20분대에 쾌속 냉동시킨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이 쾌속 냉동을 실현시킨 대우 IC냉장고는 가정 냉동시대의 돌입에 때를 맞춰, 타사가 흉내내지 못할 냉장고 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또한, 금년에 시판되어 품귀 사태까지 빚었던 더블 데크 카세트 라디오도 신제품으로서는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킨 것이었다. 종전의 카세트로는 자체 테이프 복사나 편집을 할 수가 없는 데 비하여 더블 카세트로는 이것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므로 카세트 라디오를 두대나 동원시켜야 하는 불편을 덜 수가 있었다.

그 밖에도 컴퓨터나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금년에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신제품들이 내년의 출시를 목표로 착착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광고나 판촉면에서도 금년은

아낌없는 투자를 기울였다. 다만, 이제까지의 이룩해 놓은 기반이 너무나 취약했던 탓에,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듯한 감이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투자 효과는 컸었고 반응도 좋았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 반복 효과나 누적 효과는 엄청나게 증대될 것임이 틀림없다.

앞으로는 비단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뿐만 아니라, 공중의 편익이나 사회 환경미화를 고려한 광고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대우전자가 금년도에 창단한 합창단은 문화 예술의 육성에도 다소나마 공헌하여 보겠다는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이와 유사한 노력들이 예술이나 체육 진흥을 위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시도되고 이루어질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流通組織의 정비 및 강화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마련되고 수행되었다. 不實代理店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대폭 보완되었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우 직영점도 금년 중으로 상당수가 오픈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도에 속속 오픈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신설 대리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파격적인 지원책과 함께 과감하게 밀고 나갈 작정이다.

현정부의 전자공업 육성을 위

한 확고하고 적극적인 정책 또한 기업의 투자 유인이나 기술개발에의 참여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자본 투자나 기술도입, 해외 진출, 막대한 개발비의 투입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어느 해보다도 多事多難 했던 癸亥年이었다. 수차례의 금융사건과 함께 동족상잔의 쓰라린 한을 함께 달래야만 했던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갔던 금년이었다. 그 불길은 아직도 꺼질 줄을 모르고 있지 않은가. KAL기 피격사건은 또 얼마나 우리의 피를 끓게 만들었던가. 게다가 또 저 버마 暗殺爆破事件의 충격과 분노는 아직도 우리 겨레의 피와 살을 떨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러 무수한 환난과 핍박을 이윽고 당해 오면서, 우리들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저무는 해, 되돌아 본 1년은 보람과 후회가 엇갈리는 1년이었다.

우리 대우전자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정비를 끝내고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대우전자는 항상 소비자 곁에서 소비자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信賴받는 品質, 世界를 무대로」 84년을 기대해 주십시오.